

2025. 9. 1



▲ 유틸리티/건설

Analyst **문경원**, CFA
02. 6454-4881
kyeongwon.moon@meritz.co.kr

Overweight

원전

파도가 휩쓸고 난 자리엔 무엇이 남았나

- ✓ Westinghouse와 계약과 후속 JV 설립에 대한 불안감과 기대감이 동시에 발생
- ✓ 어떤 방식이 되었든 한미 원전 협력은 불가피. 2026년 상반기까지 구체화 예상
- ✓ 한수원은 Terrapower, Oklo, X-Energy 등 SMR 개발사와 지분투자, 사업협력 중
- ✓ 우라늄 농축이 한미 원전 협력의 또 다른 축으로 부상.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주목
- ✓ 경주 APEC 등 이벤트마다 변동성 확대 예상. 장기적으로 지속 Overweight 필요

보지도 못한 계약서보다는 산업의 판을 보자

지난 8월은 원전 산업에 있어 혼란스러운 한 달이었다. 한수원-Westinghouse 간 계약과 후속 JV 설립에 대한 여러가지 언론 보도들을 통해 불안감과 기대감이 동시에 생겼다. 원전 산업은 공공 주도 사업으로서, 수주 진행 상황을 명확히 알기 어려운 특징이 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투자자들은 불확실한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추측하기 쉽다. 그러나 그보다는 전체를 바라봐야 한다. 미국은 원전을 급격히 확대하는 중이며, 이를 위해 한국의 도움이 필요하다. JV를 포함한 다양한 방식이 될 수 있겠으나, 어떤 식으로든 한수원의 미국 진출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2026년 상반기까지 협력 내용이 구체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단기적으로는 경주 APEC 등 정치적인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주가 변동성이 확대되었으나, 장기적인 Buy & Hold 전략이 더 좋은 성과를 가져올 전망이다.

한수원이 미국 SMR 사업에 적극적이라는 것 알고 계셨나요?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확인한 것은, 정부 간 협력과는 별개로 민간에서의 협력이 활발하다는 것이다. 한수원, 두산에너지, 삼성물산은 X-Energy, AWS, Fermi America와 협력하여 SMR 및 대형원전 사업에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한수원과 북미 SMR 개발 회사와의 파트너십에 주목한다. Terrapower, Oklo, X-Energy, Oklo와 지분 투자 및 사업협력을 진행 중이며, 이들이 본격적인 사업 개발에 나설 시 EPC 등 수주를 기대한다.

우라늄 농축, 또 하나의 원전 밸류체인으로 부각될까?

우라늄 농축은 한미 원전 협력의 또 다른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한수원, 포스코인터내셔널이 Centrus Energy와 함께 미국 우라늄 농축 시설에 공동 투자하기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한미 원자력협정이 개정된다면 단순 수입 뿐만 아니라 재처리, 수출 등 다양한 사업 확장 기회를 모색할 수 있다. 협정 개정 시 포스코인터내셔널 등 우라늄 농축 밸류체인이 또 다른 원전 투자처로서 부각될 수 있다.

한미 원전 협력, 부분보다는 전체를 보자

지난 8월은 원전 산업에 있어 혼란스러운 한 달이었다. 8월 중순에는 Westinghouse-한수원 간의 계약 내용이 도마에 다시 도마 위에 올라 불안감을 키웠다. 한편, 이에 대응하여 Westinghouse-한수원 간의 JV 설립 논의,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다만 한미정상회담에서 이 두 가지 협력이 공식화되지는 않았다. 실무적인 협의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논의 사항으로, APR1400(한수원), AP1000(Westinghouse) 두 가지 노형 중 어떤 것을, 얼마나 쓰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표1 Westinghouse와의 합의 관련 뉴스 플로우 (2025년)

시기	언론사/기사 제목	내용
1월 17일	한국경제/‘웨스팅하우스와 뭘 주고 받았나 ...‘파이’는 줄지만 세계시장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럽에선 웨스팅하우스의 주도권을 인정. 중동 등 신흥국 시장에서 ‘한국형 원전’으로 진출하는 식의 ‘지역 안배’가 이뤄지고, 일정한 로열티를 지급하는 합의가 이뤄졌을 가능성
3월 31일	매일경제/“파주기 논란” 불거진 K원전 ...체코 원전 수주 절반의 성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전 수출 프로젝트당 1억5000만달러의 IP 사용료 지급과 8억달러의 일감 보장을 약속
8월 18일	서울경제/尹 무리수에 K-원전 ‘50년 족쇄’ ...美에 원전 1기 당 1조원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전 1기당 6억 5000만 달러어치의 물품 및 용역 구매 계약을 WEC 측에 제공하고 1억 7500만 달러의 기술 사용료도 납부 SMR도 WEC 측의 사전 검증 필요 + 불평등 계약 기간도 50년에 달해 사실상 원전 주권을 침해했다는 지적
8월 19일	TV조선/대통령실, 체코 원전 수출 ‘불공정 계약 논란’ 진상 조사 지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통령실은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이 체코 원자력발전소 수출 과정에서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불공정한 요구를 수용했다는 보도 관련 진상 파악에 나섬
8월 19일	서울경제/원전 1기당 4억弗 ...‘백지수표’도 썼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윤석열 정부가 체코 원자력발전소를 수주하기 위해 미국 WEC와 비밀 합의를 맺으면서 수출 원전 1기당 5000억 원 이상의 ‘보증 신용장’을 WEC 측에 발급해줄기로 한 것으로 확인됨
8월 19일	한국일보/한수원, ‘북미·유럽·일본·영국·우크라이나’ 원전 시장 진출 기회 포기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체코 원자력발전소 수주 과정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이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합의로 북미, 유럽, 일본, 영국, 우크라이나 시장에 진출할 수 없게 된 것으로 확인
8월 20일	한국일보/한수원, 웨스팅하우스와 합작 회사 만들려 미국 간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수력원자력 고위 관계자들이 웨스팅하우스 측 관계자들을 만나기 위해 23일 방미 미국 원전 시장 공략을 위해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가 협력하는 JV 설립에 서명하기 위함
8월 21일	조선일보/정부 “한수원·웨스팅하우스 조인트벤처 설립 서명할 단계 아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 관계자, 한국수력원자력과 웨스팅하우스의 JV 설립 관련 “아직 JV 설립에 서명할 단계가 아니다” 이에 더해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의 JV 설립 논의는 초기 단계”라고 덧붙임
8월 21일	서울신문/“협력 잘되면 불리한 계약 수정” ...美 K-원전에 러브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시공 능력에 강점을 가진 한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희망한다는 뜻을 올해 초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 양측 협력 프로젝트가 2~3개 정도 문제없이 이뤄지면 ‘50년 기술료 지불’ 등 가혹한 조건을 전면 수정 가능
8월 22일	동아일보/한수원-웨스팅하우스 면담 무산 ...합작투자 이견 못 좁힌듯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번 한미 정상회담 일정 중 추진됐던 한국수력원자력과 웨스팅하우스 측 면담이 잠정 무산된 것으로 알려짐 원전업계 관계자는 “이번 회담 일정 내 면담만 결정되지 않았을 뿐 양측은 여전히 (JV) 설립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전함

자료: 언론 종합,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원전 산업은 공공 주도 사업으로서, 수주 진행 상황을 명확히 알기 어려운 특징이 있다. 특히나 한미 원전협력은 국가 간 외교 협상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더더욱 정보를 알기 어렵다. 우리는 계약서 전체를 본 것도 아니며, 몇 개의 계약서가 오가고 있는지도 알 수 없다. JV 이외에 공개되지 않은 다양한 방식의 협력 논의도 진행되고 있을 것으로 추측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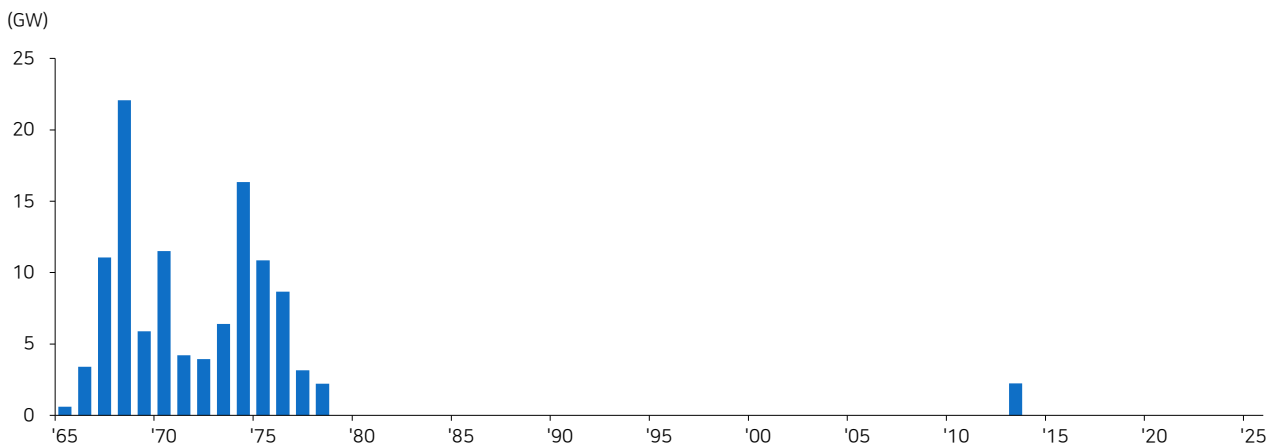
이러한 특성 때문에 투자자들은 언론에서 접한 일부 사실에 과도하게 집착해 산업 전체를 잘못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바람직한 투자를 위해서는 불확실한 '추측'이 아닌,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 사실을 기반으로 한 '추론'이 필요하다.

우리는 미국 정부가 2050년까지 4배 이상 원전 용량을 늘린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바이든 정부의 목표도 3배 증설이었는데, 정권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원전 용량을 급격히 키우려고 하는 방향성 자체는 일관적이다. 또한 우리는 미국이 1970년대 후반 이후 단 2기의 원전만 착공했으며, 그 2기(Vogtle 3,4호기) 역시 기존 계획 대비 사업비가 2배 이상 증가했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

따라서 미국이 동맹국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것은 일부 언론 보도가 아닌 사실을 기반으로 한 추론이다. 그리고 한국 이외에 도와줄 동맹국이 제한적이라는 것도 합리적 추론이다. 프랑스는 미국 이상으로 원전 공급망이 부족하며, 캐나다는 Candu가 가진 중수로형으로서 근본적 한계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APR1400 노형은 미국 NRC로부터 설계 인증을 완료한 유일한 해외 노형이다. 따라서 한수원, 한전의 미국 시장 진출은 어떤 식으로든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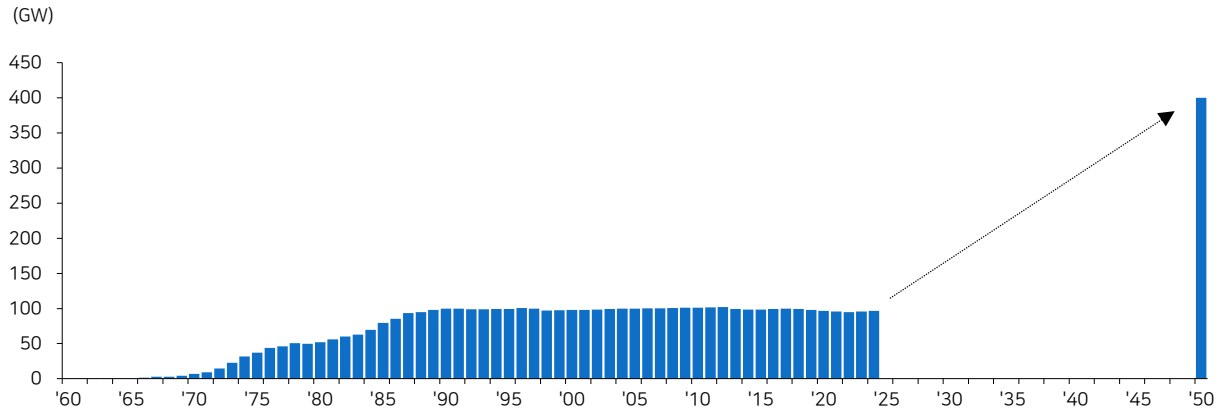
한수원-Westinghouse JV 실현 시 타겟 시장을 미국에만 한정할 이유는 없다. 협의 결과에 따라 다르겠지만, 진출이 어려울 것으로 보였던 유럽 시장에도 JV를 통해 공동 진출을 생각해볼 수 있다

그림1 미국의 연도별 원자력 발전소 착공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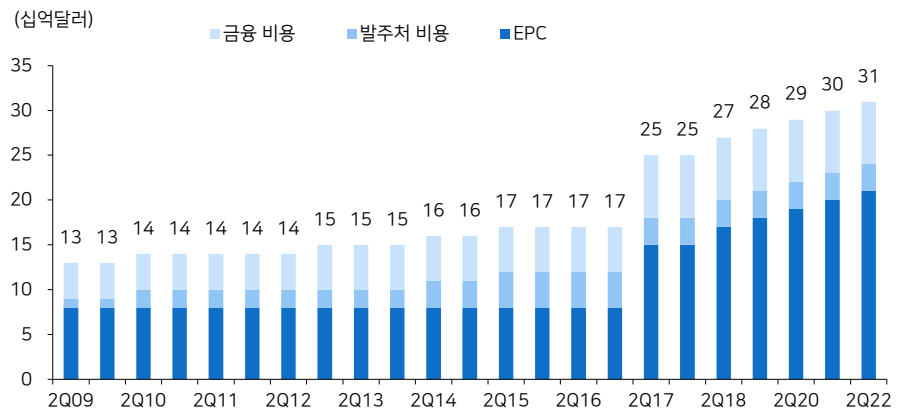
자료: PRIS,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미국의 원전 발전용량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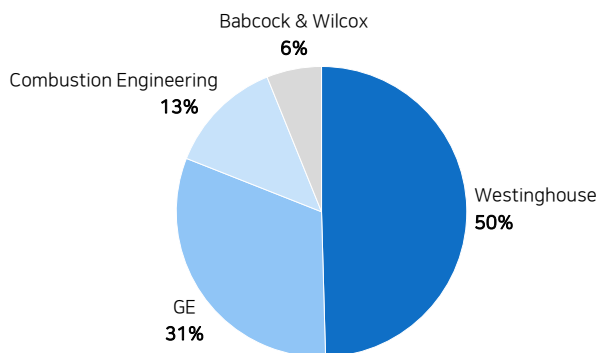
자료: EIA, 백악관,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 Vogtle 3, 4호기 예상 완공 총 비용: 초기 예상 대비 2.5배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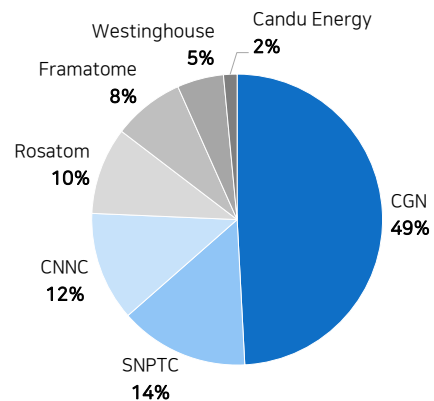
자료: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 미국 운영 원전: 제조사별 점유율



자료: PRIS,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 중국 운영 원전: 제조사별 점유율



주: CGN, SNPTC, CNNC는 중국 기업
자료: PRIS,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6 한국의 APR1400은 미국 NRC로부터 2018년 표준설계승인(SDA), 2019년 설계인증(DC) 획득



UNITED STATES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WASHINGTON, D.C. 20555-0001

April 30, 2019

Mr. Yun-Ho Kim, Project Manager
APR1400 Design Certification
Advanced Reactors Development Laboratory
Korea Hydro and Nuclear Power Co., Ltd.
70-1312-gil, Yuseong-daero
Yuseong-Gu, Daejeon
34101 Korea (Republic of)

2018년 9월 28일, 미국 NRC는 APR1400 설계인증(DA)과 표준설계인증(SDA) 신청서 심사 완료, 그 결과를 문서화한 최종 안전성 평가 보고서(FSER)를 KHNP와 KEPCO에 발급했습니다.

SUBJECT: SCHEDULE TO COMPLETE RULEMAKING AND CERTIFICATION OF THE
ADVANCED POWER REACTOR 1400 REACTOR DESIGN

Dear Mr. Kim:

By letter dated September 28, 2018, the U.S.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NRC) issued the Final Safety Evaluation Report (FSER) to Korea Hydro and Nuclear Power Co., Ltd., (KHNP) and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that documents the completion of the staff's review of the Advanced Power Reactor 1400 (APR1400) Design Certification (DC) application (Agencywide Documents Access and Management System (ADAMS) Accession No. ML18263A265). Also,

자료: NRC,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추론이 사실로 드러나기 전까지 얼마나 기다려야 할까? 불확실하지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는 2030년까지 대형 원전 10기 착공이라는 목표를 세웠다. 대형 원전 인허가(COL)가 3~4년 걸리는 점을 볼 때, 2026~2027년 중에는 COL을 시작해야 한다. Westinghouse와 미국 정부는 이전에 JV를 포함한 한미원전협력에 대한 내용을 확정짓고 싶어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트럼프의 임기는 2029년 1월까지다. 만약 Westinghouse가 정권 불확실성을 회피하기 위해 트럼프 임기 종료 전 프로젝트를 착공하고 싶다면, 2026년 초까지는 한국과의 논의를 마무리 짓고 COL에 나서고 싶어할 수 있다.

표2 보통 3년 이상이 걸리는 COL(통합인허가) 과정

프로젝트(노형)	접수	COL 발급	심사기간
Vogtle 3&4 (AP1000)	2008-06-11	2012-02-10	3년 7개월
V.C. Summer 2&3 (AP1000)	2008-08-06	2012-03-30	3년 7개월
South Texas Project 3&4 (ABWR)	2007-11-29	2016-02-12	8년 2개월
Fermi 3 (ESBWR)	2008-11-25	2015-05-01	6년 5개월
North Anna 3 (ESBWR)	2008-01-28	2017-06-02	9년 4개월
Levy County 1&2 (AP1000)	2008-10-14	2016-10-26	8년
William States Lee 1&2 (AP1000)	2008-02-29	2016-12-19	8년 9개월
Turkey Point 6&7 (AP1000)	2009-10-07	2018-04-12	8년 6개월

자료: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표3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18개월 이하로 단축하도록 노력 중 (5월 행정명령 내용)

항목	내용
고정 데드라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규 원전 COL 최종결정은 18개월 이하, 계속운전 심사는 12개월 이하 카운트는 첫 규제 단계부터 5월 행정명령 이후 18개월 내 최종 규정 확정
수수료 상한 (Enforce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한 준수 강제를 위해 시간당 수수료 회수 상한 설정
DOE · DOD 시험노형 패스트트랙	<ul style="list-style-type: none"> DOE/DOD가 안전 검증한 노형은 이미 해결된 위험 재심 금지, 새 적용 위험만 심사
추가 지침 · 구조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NRC 전면 재검토, 조직 · 인력 · 규정 · 운영 '도매 개편' 지시

자료: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한미 원전협력: 대형, 정부 주도에서 SMR, 민간 주도까지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확인한 것은, 정부 간 협력과는 별개로 민간에서의 협력이 활발하다는 것이다. 한수원, 두산에너지빌리티, 삼성물산은 X-Energy, AWS, Fermi America와 협력하여 SMR 및 대형원전 사업에 참여하기로 했다.

특히 한수원과 북미 SMR 개발 회사와의 파트너십에 주목한다. 금번 X-Energy와의 MOU 이외에도, Terrapower에 대한 지분 투자 및 사업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Oklo와는 2025년 5월 사업 협력을 약속했고, 캐나다 ARC와는 JV 설립을 논의 중인 보도가 있었다.

SMR 개발사들은 높은 시장 가치와 달리, 재무구조와 인력 규모는 기존 에너지 기업들과 비교하면 스타트업 수준이다. SMR 사업을 연구실 단위에서 수 조원 단위로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대형 EPC 회사들의 금융 조달, 공급망 조달 및 설계, 시공 능력이 필요하다. 4세대 원전 회사들의 사업 개발이 본격화될 시 한수원의 EPC 수주도 예상되며, 이는 한수원-Westinghouse JV 이슈와는 별개다. 이들의 사업 개발은 2026~2027년 본격화된다.

표4 한미정상회담 기간 한-미 기업 MOU 체결 내역

분야	주요내용	우리측	미국측
조선	공동 투자 프로그램 마련	HD현대, 산업은행	Cerberus Capital
	MRO 역량 강화, 조선소 현대화 및 선박 공동 건조 등 협력	삼성중공업	Vigor
원자력	SMR의 설계, 건설, 운영, 공급망 구축, 투자 및 시장확대 협력	한수원, 두산에너지빌리티	X-energy, AWS
	텍사스 AI 캠퍼스 대형원전 및 SMR 기자재 제작 협력	두산에너지빌리티	Fermi
	텍사스 AI 캠퍼스 원전 · 태양광 · 태양광 통합 운영 협력	한수원, 삼성물산	Fermi
	우라늄 농축공장 지분투자	한수원, 포스코인터내셔널	Centrus
항공	보잉 항공기 103대 도입	대한항공	Boeing
	GE Aerospace 엔진 구매, 정비 위탁	대한항공	GE Aerospace
LNG	2028년부터 약 10년간 연 330만톤 신규 도입	가스공사	Trafigura
		가스공사	Total Energies
핵심광물	2028년부터 게르마늄 장기 공급	고려아연	Lockheed Martin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표5 한수원과 북미 SMR 업체 간의 사업 협력 정리

대상 업체	발표 날짜	협력 내용
TerraPower	2023년 4월	(주)SK/SK이노베이션과 함께 Sodium 노형 실증, 상업화 협력 파트너로 참여 검토, 글로벌 후속사업 공동개발
TerraPower	2024년 9월	TerraPower 투자 위해 SK가 만든 SPC에 4천만 달러 투자 조건부 승인
Oklo	2025년 5월	표준설계 개발 · 검증, 라이선싱/프로젝트 초기개발, 제조성 · 시공성 평가, BOP 공급망 개발 등 공동 추진.
X-energy	2025년 8월	AWS, 두산에너지빌리티와 함께 미국에서 2039년까지 5 GW+ 신규 원전 배치 목표. 설계 · 공급망 · 시공 · 투자 · 운영 전주기 협력
ARC	2024년 5월	한수원, ARC, NB Power 3자 협력. 캐나다 뉴브런즈윅 실증을 시작으로 팀구성 · 투자 · 글로벌 배치 협력 추진.
ARC	2025년 8월	ARC 경영진과 JV 설립 논의 중(조선일보 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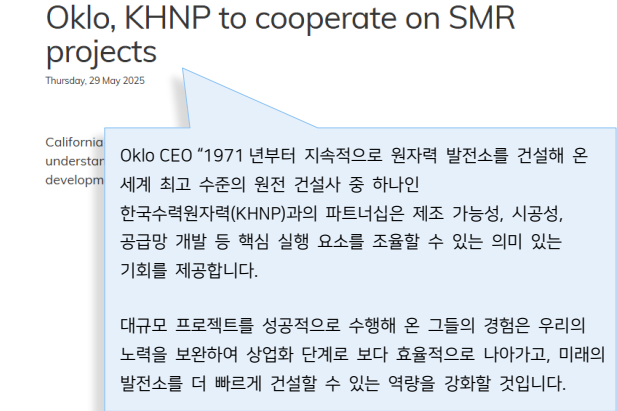
자료: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7 한수원은 Terrapower에 지분 투자를 결정



자료: 조선비즈,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8 한수원의 미국 Oklo, 캐나다 ARC 등과 사업 협력 계획



자료: World Nuclear News,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우라늄 농축: 또 다른 사업 기회

우라늄 농축은 한미 원전 협력의 또 다른 핵심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한수원, 포스코인터내셔널이 Centrus Energy와 함께 미국 우라늄 농축 시설에 공동 투자하기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한수원은 현재 농축 우라늄을 프랑스, 러시아 등에서 수입하고 있는데, 자체적인 농축 설비를 갖추 수 있다면 경제성 및 에너지 안보가 개선된다. 또한 장기적으로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사업 및 미국 및 제3국 공급 등 사업 확장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러한 협력은 한미 원자력협정(123 협정) 개정 이슈와도 맞물려 있다. 2015년 서명한 한미 원자력협정은 2035년까지 유효하며, 핵연료의 농축, 재처리, 제3국 재이전, 형태·함량 변경 시 미국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제한하고 있다.

표6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 주요 내용 비교

구분	1972년	1974년	2015년
핵연료 공급	연구용 원자로 및 상용 원자로 (고리 1호기)에 필요한 핵연료(우라늄-235) 12,900kg 공급	발전시설 용량 5,000MWe를 초과하지 않는 원자로에 필요한 우라늄 공급	미국의 핵연료 공급지원 노력 규정, 핵연료 시장 불확실성 발생시 보상금 지급 협의
공급 방법	수시 계약	고정 계약	동일
농축 권한	우라늄-235의 농축은 20% 이내, 그 이상은 미측 승인 필요	동일	20% 미만 우라늄 농축은 한미고위급위원회 협의를 통해 추진 가능
재처리 권한	양국 공동 결정시 양 당사자가 수락하는 시설에서 가능	동일	파이로프로세싱은 미국의 서면합의시 가능
재처리 사전동의	미국 동의 필요	동일	미국과 협정 체결 국가는 대부분 가능
수출입 인허가	-	-	신속화 규정
안전 조치	IAEA에 이관	동일	동일
유효 기간	30년	41년	20년, 1년전 사전 통보로 협정 종료 가능

자료: 서울대학교,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표7 주요국 장기 동의 비교

구분	일본	유라툼	인도	한국
협정 체결	1988	1996	2009	2015
장기동의 범위	농축/재처리	농축/재처리	농축/재처리	연구개발 목적 일부
민감기술 보유	있음	있음	있음	없음 (부분적 R&D 수준)
협상 기반	기술 역량 핵비확산 신뢰	동일	전략적 협력 NSG 예외 인정	제한적 기술 비확산 신뢰 구축 중
미국 신뢰 수준	높음	높음	정치적 예외 적용	제한적

자료: 서울대학교,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표8 전세계 우라늄 농축 설비 용량

국가	운영회사	설비용량 (톤SWU/년)		
		2022	2025	2030
러시아	Rosatom	27,100	27,100	27,100
영국 · 독일 · 네덜란드	Urenco	17,900	17,900	17,900
프랑스	Orano	7,500	7,500	7,500
중국	CNNC	8,900	10,000	17,000
기타	-	100	400	800
합계		61,500	62,900	70,300

자료: 서울대학교,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한미정상회담을 전후로 한국 정부는 원자력 협정 개정을 논의 중이다. 잠재적 핵 능력 보유 등 군사적인 이슈도 얽혀 있어 개정 여부는 확신할 수 없으나, 산업적으로는 미국 입장에서조차 농축 밸류체인 다변화 입장에서 개정 필요성이 있다. 글로벌 우라늄 농축 시장은 러시아가 지배하고 있으며, 특히 SMR에 필요한 HALEU 상업 생산은 러시아만 경험을 가지고 있다(Centrus 에너지가 미국 내에서 초기 생산 추진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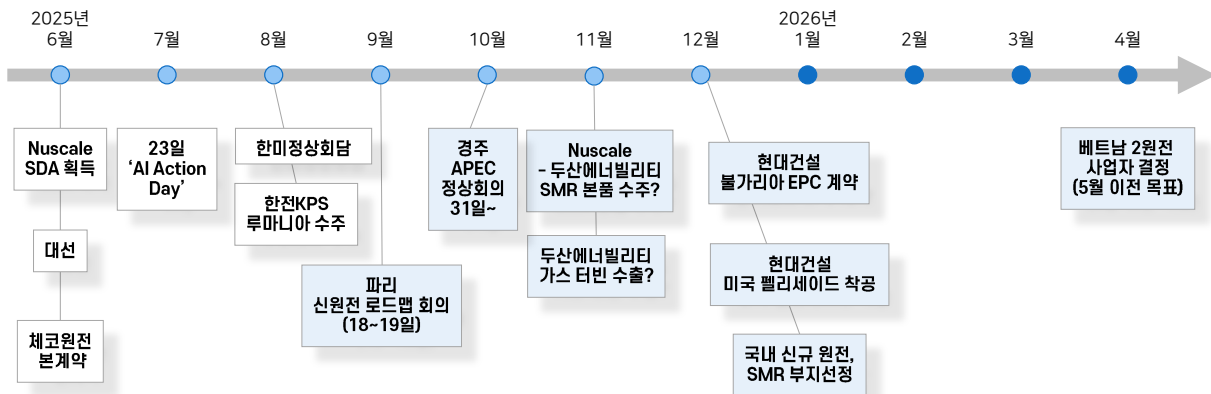
만일 개정이 된다면 포스코인터내셔널 등 우라늄 농축 밸류체인이 또 다른 원전 투자처로서 부각될 전망이다. 실제 사업화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겠으나 주식 시장은 새로운 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여 단기적으로 선제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

파도가 지나간 후 더 뚜렷해진 그림, 팀 코리아 Buy & Hold

8월 정상회담 전후 노이즈는 한미 원전협력의 방향성을 더욱 뚜렷하게 만들었다. 한수원-Westinghouse 간의 JV,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민간 회사 간의 SMR 사업 개발 등 다양한 갈래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미 원전 협력이라는 거대 모멘텀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경주 APEC 정상회담(10월말~11월 초) 등 정치적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기대감을 반영하여 주가 변동성이 커질 전망이다. 이러한 변동성을 노린 단기 매매 전략도 유효하지만, 만약 2026년까지 장기적인 관점에서 핵심 수혜주를 장기 보유한다면 기대수익률은 더 높다.

2025년 중 협력과 관련 없이 미국 시장 진출(SMR, 가스터빈 수주 등)이 확대될 두산에너지빌리티가 단기적(2025년 중)으로는 가장 안정적인 옵션이 될 것이며, 한국전력, 한전기술 등 팀코리아 밸류체인에 투자하는 것은 더 길게 보았을 때 가장 큰 Upside를 볼 수 있는 투자처가 될 것이다.

그림9 원전 산업 내 중요 이벤트 정리



자료: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당사는 자료 공표일 현재 포스코인터내셔널의 이해관계인정법인입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추천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